

왜 한국사람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외국인보다 덜 두려워하는가?

왕하이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한국학과 석사과정)

목차

I. 서론

II. 원인 분석

1. 많은 경험을 통한 심리 면역력
2. 북한에 대한 이해 정도
3. 언론 영향 차이
4. 선택 여지 차이

III. 결론

초록

작년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도 급감했으며, 한국에 있던 많은 외국인들은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한국사람들 중에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외국사람들과 같은 큰 소란은 없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 궁금했고 이를 연구해 보았다. 원인은 주로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금까지 북한과의 충돌과 위협을 많이 겪는 동안 한국인의 심리적인 인내심이 늘어났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면역력이 외국인보다 높기 때문에 덜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해 외국인보다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셋째, 한국의 언론이 직접적으로 한국인에게 영향을 주는 반면에 외국인에 대한 영향력은 적다. 마지막, 외국인에 비해서 한국인은 선택 여지가 없으므로 덜 두려워한다.

위의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 북한의 위협 하에서 외국인들의 불안을 해소 시키는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인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해 많이 소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한국의 대중매체들이 다양한 언어로 외국인들에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든 국외에서 홍보를 통해 외국매체에서도 더

I. 서론

2 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적으로 보게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60 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이 발생했다.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거나, 서울의 중요목표를 파괴 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특히 작년 12 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올해 3 월 11 일부터 한미(韓美)간에 '키 리졸브' 훈련을 시작한 후에 남북관계는 더욱 긴장 되어갔다. 심지어 북한은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고, 3 월 30 일에는 남북간 전시상황 선언까지 선포하였다. 4 월 9 일 북한은 "남한 내 외국인들은 대피하라"고 엄포를 놓았고, 한국 매체들은 북한이 10 일 후에 중거리미사일 '무수단'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마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과 같은 공포스러운 시간이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도 급감했으며, 한국에 있던 많은 외국인들도 불안에 떨었다. 그때 필자가 있는 한양대학교에서도 많은 외국 학생들은 국제협력처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 하였다. 휴학을 신청하려는 학생도 있었지만 휴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귀국을 하는 학생과 자퇴한 학생까지 있었다.¹⁾ 물론 한국사람들 중에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외국사람들과 같은 큰 소란은 없었다. 인터넷을 보면 간간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는 반응 이었다. 실제로 지난 4 월 필자가 한국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한국사람들 중 전쟁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²⁾

북한은 한국의 큰 위협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도 한국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평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점이 굉장히 궁금했고, 이는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했다. 본 연구는 이후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외국인들의 두려움에

1) 이 정보는 한양대학교 국제협력처 김미예 선생님 제공하였다.

2) 한국 사람 11 명, 외국인 8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사람 중 전쟁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으며, 외국인 중 걱정하는 사람은 5 명,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3 명이 있다.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주로 2013년 북한의 도발 위협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II. 원인 분석

1. 많은 경험을 통한 심리 면역력

한국 사람들은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 북한과의 충돌과 위협을 많이 겪는 동안 심리적인 인내심이 늘어났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이 외국인보다 높기 때문에 덜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다.

4월 6일 주부 이모씨는 뉴욕타임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은 그간 계속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위협에 처한 건 확실해 보이지만 실제 이곳에서 살면 그것에도 익숙해진다”며 “대단한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³⁾ 필자의 조사도 비슷한 결과 나왔다. 한국 사람들 11명 중 5명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 불안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불가불안이다. 따라서 신문을 통해 사재기 현상을 검토하면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사건 당시에 일부 국민들이 전쟁 발발설(勃發說)로 인해 사재기 소동을 벌이는 등 불안해하고 있었다.⁴⁾ 1994년 6월, 북한 핵과 관련된 사회 불안 심리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쌀과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급속히 번지고⁵⁾ 라면 판매량이 일주일 안에 20% 정도 늘어난 적도 있었다.⁶⁾ 하지만

3) 조선일보 2013.04.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07/2013040700075.html

4) 한겨레 1993.03.19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31900289101007&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3-19&officeId=00028&pageNo=1&printNo=1506&publishType=00010>

5) 한겨레 1994.06.16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6160028910300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6-16&officeId=00028&pageNo=3&printNo=1927&publishType=00010>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였을 당시의 신문을 보면, “국민들 놀라움과 충격 속에 당황하기도 했으나 전쟁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 때문에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의 사재기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 발전된 국민 의식을 보여주었다.”⁷⁾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올해에도 북한은 당장 오늘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를 위협하였지만 대형마트 등에서 생활필수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⁸⁾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학습효과”이다. 그동안 북한은 항상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때때로 금방 쳐들어올 것 같이 위협을 해 왔으며,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통해 더욱 위협적인 면모를 과시해 왔다. 이에 한국 국민들은 처음에는 크게 당황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말 뿐이고 실제로 이어지지 않자, 축적된 경험을 통해 한국 국민들은 학습효과를 얻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점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국력이 북한보다 월등해졌다는 인식에 의해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심리적 거부”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지한 무엇인가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면 인지된 현상을 잠재적으로 억누르거나 거부하는 경향을 띤다. 재앙과 같은 결과가 닥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그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저서「문명의 붕괴」에서 개인 심리학에 잘 들어맞는 “심리적 거부” 현상이 집단 사고에 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댐 아래 마을이 있다고 가정하자. 보통 댐으로부터 가까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댐이 무너지는 위험을 더 많이 느끼고 멀리 있는 마을은 위험을 덜 느낀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댐의 붕괴에 대한 위험을 가장 크게 느낀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이 덜하다. 왜냐하면 매일 매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댐이 붕괴될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⁹⁾

6) 한겨레 1994.06.17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61700289107002&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6-17&officeId=00028&pageNo=7&printNo=1928&publishType=00010>

7) 매일 경제 1994.07.11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71100099131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7-11&officeId=00009&pageNo=31&printNo=8810&publishType=00010>

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04/2013040401857.html

9) Diamond J. Collapse: how societies choose to fail or succeed: revised edition[M]. Penguin. com, 2005. pp.435-436

한국 사람들은 댐 아래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같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댐으로부터 멀리 있는 마을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수십 년 전부터 바로 이런 위협 속에서 생활해 왔다. 처음에 이런 일을 당하면 심각하게 걱정할 수 있겠지만, 매일 매일 걱정하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점점 "심리적 거부"를 보이는 태도를 취하였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태연한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상황이니 감내하는 것일 뿐일 수 있다.

심리적 거부 태도는 학습효과와 결합하면 더욱 굳건한 자기확신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습효과와 심리적 거부는 상호 강화작용을 통해 한국인의 북한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은 처음부터 평화스러운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위협에 대한 학습효과나 심리적 거부와 관련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북한의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도발 행동을 보면 불안과 걱정이 생기기 쉽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은 한국 사람보다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해하기 쉽다.

2. 북한에 대한 이해 정도

수십 년 동안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연구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행동들의 목적과 특징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외국인보다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람 11 명중 5 명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치, 경제 등 측면에서 자세히 인지하고 있었다. 교수들뿐만 아니라 회사원,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모두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연구 전문가 아니라도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다. 조사 대상의 인식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령 전쟁이 진짜 시작하면 한미동맹은 북한의 정권을 멸망시킬 것이다. 김정은이 자기 권력의 붕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매우 작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 현황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지라도 오래 못 버틴다. 김정은 정권은 이런 조건에서 어설픈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다고 예상했다.

북한 행동을 보다 깊이 분석해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이번 북한 위협 사건의 배경을 분석해 보면 북한은 국내 정치 안정과 김정은 집권을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도자 김정은은 결코 굴복하지 않는 대단한 지도자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은 권력을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리더로서 자기의 능력과 권위를 민중에게 보여 주고 싶어하기도 하는 한편, 군내 장군들로부터 인정 받음으로써, 권력을 자기 손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 정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드는 행위를 통해 자국이 핵 보유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인정 받기를 바라며, 이것을 조건으로 미국과 회담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사람에게 위기감도 줄 수 있으므로 심리전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진짜 전쟁하고자 하는 의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는 학습효과 및 심리적 거부의 상호작용에 따른 자기 확신 증강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학습효과라는 경험과 심리적 거부라는 정서적 측면에 더해 합리적 분석에 기초한 북한 행동의 이해와 예측이라는 이성적 사유의 측면이 결합되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북한에 대해서 상세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쉽게 불안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항상 말을 앞세우고 실제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위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8명 중의 외국인 학생 중에서 3명만이 전혀 걱정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한 명은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걱정이 없다고 했다. 두 명은 박사과정으로 북한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 반면에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걱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 북한에 대해 논리적인 분석이 부족하였다.

3. 언론 영향 차이

한국의 언론은 직접적으로 한국인에게 영향을 주는 반면에 외국인에 대한 영향력은 적다. 다수의 한국 언론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뛰어나며 전쟁을 일으키면 한미동맹 덕분에 분명 북한을 이길 것이고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들의 두려움을 줄이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조사 대상 11명 중의 7명은 거의 매일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었다. 비교적 논리적인 태도를 보여준 5명은 매일 뉴스를 보고 있었다.

지난 3월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처음 공언한 이후, 북한은 서울-워싱턴 불바다 발언(6일), 서해 5도 포 사격 훈련(14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15일), 국가 급 상륙 훈련(25일), 군 통신선 차단(27일), 전략미사일 사격 대기 지시(29일) 등 가용한 카드를 한 장씩 꺼내는 '살라미 전술'과 일련의 무력 시위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패턴은 한-미 양국에 '전쟁 공포증'을 부각시키며 정세 주도권을 쥐려는 전형적인 심리전으로 해석된다.¹⁰⁾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북한이 남한 내 외국인들에 대해 대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¹¹⁾ 위와 같은 북한의 심리전에 대한 뉴스는 "naver" 에서 "북한 심리전" 검색어를 치면 총 430 건이나 나온다.(3.30~4.15)

반면에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국신문과 방송을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들을 얻을 수 없고, 모국의 뉴스는 남북간의 사태를 과장되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더욱 쉽게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한 덴마크의 기자는 "현재 덴마크 뉴스의 3분의 1은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한 기사로 구성되고 있다"며 "많은 덴마크인들이 전쟁이 날까 걱정하고 있다고"말했다. 중국에서의 보도 역시 긍정적인 분석과 보도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이 보였다. 특히 4월 10일 장렌구이(张琨瓊) 교수의 말을 인용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확률이 70%~80%에 달한다는 기사가 나왔다.¹²⁾ 당시에 이 기사를 비롯한 부정적인 기사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더 증가 되었다.

조사를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8명중 5명은 모국의 부모들이 많이 걱정한다는 것 알 수 있다. 유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모두 모국의 매체를 통해 북한 사태를 접하며, 대부분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 또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조사 대상 8명의 유학생 중 2명만이 항상 한국의 신문과 방송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2명은 가끔 접착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한국 뉴스를 안 보거나 한국어 신문과 방송은 보기와 듣기가 편하지 않아서 별로 접하지 않다고 말했다.

10) 서울 뉴스 2013.04.0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01004017>

11) 이데일리 뉴스 2013.04.09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2624006602774480&DCD=A00601&OutLnkChk=Y>

12)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3-04/3813416.html

4. 선택 여지 차이

많은 것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외국인인 처음부터 한반도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공부나 여행 또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유인이 있다. 따라서 전쟁이 발생하는 확률에 관계없이 가능하면 그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조사 대상 중의 카자흐스탄 국적의 김씨는 위험을 피하고자 귀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 따르면 충청북도 내 A 대학의 파라과이 유학생 B 씨는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 전쟁위험이 없는 대만으로 11 일 일주일간의 피신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¹³⁾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더욱 취약해지고 이런 피난 선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외국사람에 비해 선택 여지가 없으므로 두려움을 감수하거나 이기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의 몇 마디 때문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달리 갈 곳이 많지가 않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요컨대 북한의 위협을 대할 때 한국 사람들이 더욱 안정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도발을 많이 경험하면서 심리적인 면역력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정보 접하게 되고 연구 전문가 아니더라도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다. 게다가 한국의 대중 매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동시에, 정부나 전문가의 긍정적인 분석과, 전쟁이 발생 할지라도 꼭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많이 보여준다. 이 모든 요인들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에 비해 선택의 여지가 많은 많은 외국인들 오히려 더 위협에 취약하게 된다.

13) 충북일보 2013.04.11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281845>

위의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 북한의 위협 하에서 외국인들의 불안을 해소 시키는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인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해 많이 소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북한의 행동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 줄 수 있다면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대중매체들이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도 국외에서 한국의 실력과 자신감에 대한 많은 홍보를 통해 외국의 매체에서도 더 긍정적인 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외국인들의 심리적인 면역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추후에 북한의 위협 상황 하에서 외국인들의 큰 혼란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Diamond J. Collapse: how societies choose to fail or succeed: revised edition [M]. Penguin.

com, 2005. pp.435-436

[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04/2013040401857.html

[3]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3-04/3813416.html

[4] 이데일리 뉴스 2013.04.09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2624006602774480&DCD=A00601&OutLnkChk=Y>

[5] 조선일보 2013.04.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07/2013040700075.html

[6] 서울 뉴스 2013.04.0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01004017>

[7] 충북일보 2013.04.11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281845>

[8] 한겨레 1993.03.19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31900289101007&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3-19&officeId=00028&pageNo=1&printNo=1506&publishType=00010>

[9] 한겨레 1994.06.16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6160028910300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6-16&officeId=00028&pageNo=3&printNo=1927&publishType=00010>

[10] 한겨레 1994.06.17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61700289107002&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6-17&officeId=00028&pageNo=7&printNo=1928&publishType=00010>

[11] 매일 경제 1994.07.11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71100099131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7-11&officeId=00009&pageNo=31&printNo=8810&publishType=00010>

<첨부 자료>

조사 자료 (2013.4.15 일 전에 수집)

한국인

순번	이름	나이	신분	관점이나 행동
1	여**	20 대	대학생	북한에 대해 관심 없다. 북한 심심하면 몇년 한번씩 이런 사건 만들 것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때로는 Naver, SNS 등 도구를 통해 뉴스를 본다.)
2	이**	20 대	대학생	하나호 사건과 연평도 사건 발생했을 때 많이

				두려워했고 걱정했는데 나중에 아무 일도 없었다.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 (때로는 naver SNS 등 도구를 통해 뉴스를 본다.)
3	송**	20 대	대학교 직원	북한은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 시작하면 북한 정권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행동들 다 심리전이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매일 인터넷으로 뉴스를 본다.)
4	박**	20 대	대학원생 석사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 말로써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미 익숙해졌다. 게다가 한국의 언론은 항상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뛰어나며 한미 동맹은 꼭 북한을 이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그리 무섭지 않다. (거의 매일 인터넷으로 통해 뉴스를 본다.)
5	김**	30 대	회사원	북한이 몇 년 한번씩 이런 말을 하니까 별일 없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신문 구독하여 매일 보고 있다.)
6	임**	30 대	회사원	별일 아니다. 북한 항상 그렇다. (가끔 Naver SNS 등 도구를 통해 뉴스를 본다.)
7	주**	40 대	회사원	진짜 일어나면 어쩔 수 없다. 도망을 가도 갈 데 없고 한국에서 하는 일을 두고 외국으로 가는 것도 많은 사람에게 불가능하니까 지금 살던대로 살 수 밖에 없다. (가끔은 신문 보거나 Naver SNS 등 도구를 통해 뉴스를 본다.)
8	떡볶이집 아주머니	50 대		전쟁 일어나면 한국은 큰 피해 있어도 남아 있을 것이지만 북한은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이다. 북한은 뭘 달라고 싶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전쟁이 나면 걱정해도

				<p>소용없고 미사일 오면 다 죽으니까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게 낫다.</p> <p>(매일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본다.)</p>
9	김**	50 대	대학원 교수 (정치학)	<p>북한이 전쟁 일으키면 분명 한미동맹은 북한의 정권 멸망 할 것이다. 김정은 미쳐서 같이 죽자는 생각이 없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매일 본다.)</p>
10	이**	50 대	대학원 교수 (정치학)	<p>북한의 행동의 목적은 알면 아무 걱정도 할 필요 없을 거이다. 북한 국내 정치 안정과 김정은 집권을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강한 행위로 자기 지지 않다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권력을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리더로서 자기의 능력과 권위를 민중에게 보여 주고 싶다. 그리고 군내 장군들의 인정받고 권력을 자기 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p> <p>(신문을 구독하여 매일 보고 있다.)</p>
11	이**	60 대	대학원 교수 (법학)	<p>북한의 경제 현황은 전쟁을 일으킬지라도 오래 못 버틴다. 북한은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어설픈게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다.</p> <p>(신문을 구독하여 매일 보고 있다.)</p>

순번	이름	국적	나이	신분	관점이나 행동
1	왕**	중국	20 대	대학교학생 학부	나와 상관이 없다. 관심 없다. (한국 매체로 뉴스를 안 본다.)
2	왕**	중국	20 대	대학원생 석사	많이 걱정했고 4 월초에 거의 매일 매일 신문보고 있었다.특히 4 월 10 일부터 15 일까지 너무 긴장했다. 대피소도 많이 찾았다. 그리고 선생님 찾아서 심리상담까지 했다. 부모님도 몇 번이나 전화해서 상황이 어떤지 물으셨다. (4 월 전에 한국 매체로 뉴스를 가끔 본다. 4 월 초부터 15 일까지 매일매일 많이 본다.)
3	최**	중국	20 대	대학원생 석사	좀 걱정하였다. 부모님도 걱정하셨다.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진짜 일어나고 여기서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 (한국 매체로 뉴스를 안 본다.)
4	김****	카자 흐스 탄	20 대	대학원생 석사	부모님 너무 걱정하셔서 귀국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4 월 10 일 귀국하였고 일주일 후에 사태 좀 좋아진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 매체로 뉴스를 안 본다.)
5	맹*	중국	20 대	대학원생 석사	좀 걱정을 하였다. (한국 매체로 뉴스를 안 본다.)
6	장**	중국	30 대	대학원생	부모님 걱정하셔서 비행기표 끊어서 귀국하라고 불렀지만 4 월 9 일 전에

				박사	안 갔다. 그 후에 부모님도 전쟁 대피용품 수시로 준비하여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최대한 빨리 대피하라고 말씀하셨다. (한국 매체로 뉴스를 가끔 본다.)
7	라*	인도	30 대	대학원생 박사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한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 남북한간의 군사력의 차이, 전쟁의 득실을 분석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항상 한국 매체로 뉴스를 본다.)
8	다**	일본	30 대	대학원생 박사	북한이 말만 하고 있다고 믿어서 무서워하지 않았다. 신문을 보고 부모님 한번 전화 하셨는데 부모님께 설명하고 나서 다시 걱정 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평소에 인터넷과 텔레비전으로 한국 매체 뉴스를 보고 있다.)